

새 대통령도 바뀐다

이주여성들에 다양한 일자리를

▲레티라홍 결혼이주여성



베트남에서 한국에 시집온 지 8년되는 결혼이주여성이다. 올해 대한민국 국적도 얻었고 대통령선거도 했다. 현재로서는 이주여성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한국말은 서툴지만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또 부모님 외에도 형제, 자매들을 초청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한다. 아무쪼록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주여성들의 소망을 들어 주셨으면 한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돼 달라

▲박태후 문인화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겠는가? 총리 내장부터 대선 공약 후퇴까지 아쉬움을 넘어 매끄럽지 못한 결정 방식에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화장실 가기 전과 나온 후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의 행보도 호남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친다. 소인배들은 그랬다. 전 정권도 그랬다. 임기 동안, 또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까지 통치자의 뒷모습을 훑어지게 지켜볼 것이다. 부디 국민이 '실패'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亞문화중심도시 성공적 완성을

▲조진태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시인의 입에 재갈을 물린 권력자는 불행한 종말을 맞았음을 동서고금은 전하고 있다. 시인의 입을 자유롭게 하라. 그래서 문화예술을 창경케 하라. 문화예술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꿀 새로운 재화생산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며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삶의 질은 복지제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에서 평가된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은 박근혜 정부의 일이다. 문화광주를 대한민국의 품격높은 브랜드 가치로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광주의 민심을 얻는 일은 먼 데 있지 않다.

젊은 작가들에 재정적 지원을

▲이주한 사진작가



문화예술 중에서도 사진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 최근 배병우 작가 등 국내 많은 사진작가들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면서 한국 사진예술을 알리고 있다. 앞으로 이런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젊은 작가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아르떼 예술감사 프로그램'이 있다. 어려운 작가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학생들에게는 문화적 소양을 길러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높여달라

▲김유정 다문화M오케스트라 단장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와도 정착 설 무대는 거의 없는 등 예술인들의 여건이 너무 취약하다.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1~2년 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다문화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지원책들이 다소 걸렸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들이 수립되면 좋겠다.

국민행복시대...산적한 과제에 '朴心은 근심'

정부조직개편·청문회 등 난망... '이명박 내각'과 동행

인사편중·경제민주화 후퇴... 지지도 50% 밑으로 '뚝'

'박근혜 정부'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과 함께 공식 출범한다. 현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역사적인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앞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고 정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의미와 과제>=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출산과 보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상생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국민행복시대'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처한 안팎의 환경은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안으로는 저성장과 일자리부족, 양극화, 이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하면서 전방위적인 사회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으로는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도 박 당선인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외부 요인이다. 새 정부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이러한 국내외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게 공

생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갖추는 것이라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충,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성장에 방점을 둔 나머지 대선 최대공약인 '경제 민주화'를 후퇴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기초연금과 4대 중증 질환 등 핵심 복지공약 일부가 후퇴한 것도 박 당선 지지이다. 하지만, 조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사에서부터 이 같은 의지가 투영되지 않았다는 게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같은 영남 인맥인데다 같은 대학 출신이어서 비판이 대상이 됐다. 반면, 호남인사들은 또다시 소외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개 정국> 4·10월 재보선 분수령=새 정부가 25일 출범하나 정국은 역대 어느 정권 출범 때보다 혼미하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정홍원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장관 내정자들에게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명박 내각'으로 출발하게 됐다. 또 인사편중과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 논란 등의 여파로 박 당선인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급기야 50% 밑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해도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만한 뾰족한 해법이 없

양학선 등 광주·전남 취임식 초청자들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영광"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앞 취임식장에서 열린 예행연습에서 의장대가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장대 취임식 연습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앞 취임식장에서 열린 예행연습에서 의장대가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취임을 알리는 타종사에 이어 취임식까지 참석하게 돼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듯합니다" 25일 0시를 기해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리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공식임기 시작을 알리는 타종행사에 타종자로 참석하는 광주출신 체조영양사 출신 양학선(43)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양 선수는 "저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성적도 좋은 운동선수가 많은데도 스포츠 대표로 초청돼 영광"이라며 "대통령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체조기술을 개발해 2015년 고양 광주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양 선수는 이날 오전에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광주·전남지역 소외계층과 낙도주민, 다문화 가족 등과 함께 특별초청 대상으로 참석한다. 광주에서 다문화 가족 대표로 참석하는 베트남 출신 렌티라홍(여·28)과 박영수(36)씨 부부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볼 수 있게 돼 너무 영광스럽다"며 "혹시라도 대통령에게 건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주여성의 인권향상과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한국으로 시집을 온 이주 여성의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면서 "현재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부모로 한정돼 있는데 형제, 자매도 초청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한다"며 소박한 바람을 전했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

일명 '開門發車정부?!' - 김중두. Illustration of a woman celebrating with confetti and a sign that says '대통령 취임' (President Inauguration).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dmissions.

광주현대차 (Kia) advertisement for the Chairman W.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car, technical specifications like '4TRONIC All Wheel Drive System', and a detailed table of financing options and lease programs.